



목차

PART 1

01

국어 영역 가이드라인

- 왜 지문이 안 읽힐까?
- 기출을 보는 이유

02

기출을 뜯다

- 기출분석 1 - cd 드라이브
- 기출분석 2 - 심신이원론
- 기출분석 3 - 분광 분석법
- 기출분석 4 - 플래시 메모리

03

붕 뜨는 글 연결하기

- 지문 그대로 독해하기
- 지문을 근거로 추론하기

04

필수 기출 선별

- 2016~2017학년도 기출
- 2018학년도 기출
- 2019학년도 기출
- 2020학년도 기출

01 가이드라인

지문이 안 읽히는 이유 / 무의식 중 읽는다 / 국어는 힘들어야 한다 / 왜 비문학을 읽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문장 간 연결 / 문단 간 연결 / 국어 지문을 보라고 준 게 아니다 / 보지 말고 독해를 하자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 / 사실보다 정확한 / 유기적 흐름을 보자 / 기출을 사실 N제와 동일시 하지 말자

국어 영역의 출제 원리는 무엇일까? 평가원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한다.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각 연도 수능이 끝나면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학년도 대수능 우준론 지문은 물2를 공부한 학생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다.

혹은 법 지문이나 경제 지문을 출제하면 법과 정치, 경제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는 논란거리가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확실히 배경지식을 갖고 지문을 읽게 되면 쉽게 읽을 수 있고 다음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읽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점은 그만큼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교평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어 영역은 지문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한다고 제시합니다.

이 말은 즉, 국어 영역의 문제는 지문과 보기에서 '객관적 읽기'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해석을 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영역은 출제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국어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 다양한 분야의 글에 대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능력과 적용·창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국어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능력"

사실 평가원에서 제시한 두 주장은 결국엔 객관적 독해(해석)를 기반으로 하고 객관적 읽기를 바탕으로 추론과 적용(보기를 바탕으로 대입)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에게 맞추려면 누군가에게는 어느정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출제하고 그 문제를 수많은 사람과 수없이 긴 시간을 들여 간추립니다. 걱정 말고 공부하세요.

평가원의 출제방향이 이러하듯 우리는 수능이라는 객관적 표본을 추출하는 시험을 보는 만큼 그에 맞춰 학습해야 합니다.

독해를 할 때, 지문을 읽은 것과 "잘" 읽은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마도 문제를 풀 때 나타날 것입니다.

A학생은 문제를 풀러 하니 지문에서 해매고, B학생은 문제를 풀 근거를 지문으로 찾으러 가고 C학생은 바로 근거를 생각해내 풀 수도 있습니다. 사실 C학생은 머리가 좋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니 B학생이 되어서 문제를 A학생보단 빠르게 C학생보단 정확하게 풀면 어떨까요. 지문을 "잘" 읽어봅시다. 평가원의 지문은 우리에게 흐름의 공백이 있는 지문을 주지 않습니다. 즉, 문장 간 연결 문단 간의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법률 효과' 지문을 보면

2문단에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4문단에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 나옵니다.

그냥 읽어봅시다. 청구권의 내용이 임하고 채권의 내용이 임하겠죠?

이제는 잘 읽어봅시다. 아, 청구권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문장, 문단 간 연결이 됩니다.

정보가 따로 노는 것과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읽는 것은 문제를 풀 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대할 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① 문장을 "잘" 읽자. 시간이나 접속어를 잘 파악하자는 말입니다.
- ② 지문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자. 수능이 8달 남은 시점에서 쓰는 글입니다. 시간이 많으니 체화합시다.
- ③ 1~2문단에서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자. 지문에는 맥락이라는게 존재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주제의 갈피를 잡고 독해합시다.

제가 위에서 제시한 지문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진 지문이고 최근 기출이기에 당연히 분석해봤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만약 제 글을 보고 처음 아신 분들이라면 기출 분석이 아닌 기출 N제를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기출은 푸셔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학생들까지 기출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문에서 얻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고 문장마다 의도한 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출을 읽지만 말고 스스로 뜯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선생님, 강사, 그리고 저는 그저 뜯어보기에 도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기출 N제가 아닌 기출 분석을 통해 체화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책은 지문만을 분석하는게 아닌 문장마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서술해놓았기에 일부 지문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문을 먼저 읽고 보시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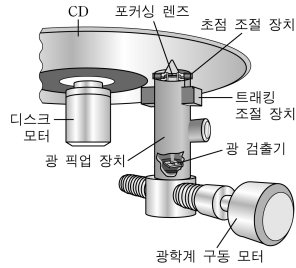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쪽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28. 밑줄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29.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 되겠군.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3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5	5	3	3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 ②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③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④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02 문장과 문단 읽기 - CD 드라이브

문장과 문단 연결 / 유기적 연결을 통해 / 지문의 정보 최소화 / 지시어 접속어 체크 / 흐름을 파악하자

주제 파악 / 정보량이 많으면 / 체크하고 돌아와도 좋다 / 시간을 단축하기 / 국어는 암기 시험이 아니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1문단부터 정보량이 많습니다. 최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cd드라이브의 개념이 나오고, 그 내부의 구조가 나오면서 랜드와 피트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일부가 산란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하면서 비교해주는 부분을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 읽는 사람의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과 상관없이 쓰겠습니다.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일단 다음 문단에서도 랜드와 피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랜드와 피트가 배치된 곳이 트랙이라고 합니다. 2문단으로 가볼게요.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1문단에 이어 정보량이 폭발적입니다.. 우선 그림을 제시했으니 이 많은 정보들을 정리할 때, 그림에 적용해서 읽어야 합니다.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 광 검출기, 포커싱 렌즈 이 모든 것을 그림에서 제시하고 지문에 그림까지 준 걸 봤을 때, 아 이런 적용형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정보량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3점짜리 문제다. 생각하고 천천히 읽으세요. 국어를 짧은 시간에 암기하라고 준 게 아닐테니 순서를 체크하면서 1문단에서 제시한 랜드와 피트에 초점을 맞춰 읽으시면 좋습니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긴다? -> cd를 회전시키는 디스크 모터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디스크 모터가 빠르면 문제 상황(P)이 발생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해결 상황(S)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바로 해결해줍니다.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통해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광 검출기는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고.. 뭐 트랙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직각으로 좌우가 배치.. 가볍게 생각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빛의 양이 많아지면 출력값도 커진다" 비례 관계이니 각자의 방식으로 체크해주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저 비례 관계는 + 반비례 관계는 -로 체크해둡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출력값의 합으로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네요.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니까 다시 한 번 뒤에서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 정도 하면서 읽어봐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렌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초점이 맞은 상태면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앞에서 말한 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인거 파악하셨죠? 3문단에서 정보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방금 문장은 쉽게 연결되어서 읽혀야 해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오면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되면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 편차를 보정한다. 이 문장 역시 3문단의 광 검출기를 통해 편차를 보정하는 내용을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딱 읽으면서 연결하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재언급을 해줬다면 문제에 출제되지 않을까? 하고 더 세세하게 읽으셔야 해요. ㅇㅋ?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 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5문단을 읽어보니 4문단에서는 좌우 영역만 봤다면 cd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에 따라 분류하며 전후/좌우 영역을 모두 문제 상황으로 제시합니다. 거리가 멀면 좌우가 길어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네요. 거리가 멀수록 출력값이 커지구요. 앞과는 다른 문제 상황이니 조절 장치도 다르겠죠? 3문단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해결 방법 중 트래킹 조절 장치가 4문단에서 나왔다면 5문단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를 통한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초점 조절 장치의 위치를 조정해 초점이 맞도록 한다고 하네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문을 스스로 뜯어보는 연습을 하고 문장, 문단 간 연결을 해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꼭 해보시길 바라요.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02 문장과 문단 읽기 - 심신이원론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 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이 지문은 1문단에서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 먼저,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를 보면 아, 뭔가 이분법적으로 비교 대조하며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읽을 수 있겠네요. 2번째 문장에서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비교/대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영 근데 갑자기 3번째 문장에서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 우선 가벼운 궁금증만 가진 채 문제 상황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후 마지막 문장에서 심신 이원론이 나옵니다. 심신 이원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우선은 해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예시는 가볍게 체크해두고 읽어주세요. 적용하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1문단에서는 심신이원론 애기로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상호작용론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다음 문장을 읽어주세요. 어? 갑자기 1문단에서 본 예시와 비슷하게 2문단에서도 등장합니다. 재언급을 했다면 당연히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문장 이해는 다소 어려울지 몰라도 막상 주장하는 바는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이 긴밀하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상호작용론이 심신 이원론과 같다고는 생각하는 건 과한 추측이고 // 다르지는 않으니 다음 문단에서는 집합의 관계정도로 바라보면서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으니 다음 문단에서 해결 과정이 다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이라고 하며 바로 다음 해결 과정이 나옵니다.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어떠한 인과 관계도 없이 말 그대로 사건이 동시에 평행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평행론은 근대 과학의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 상황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마 다음 문단에서도 해결 상황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만 3가지가 등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비교/대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통점은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입각한다는 점이 있고 차이점은 인과관계의 성립 유무가 있겠군요.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론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역시 평행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부수 현상론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나오네요. 첫 문장에서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겠네요. 일단은 전부 관련 내용이니 밑줄을 쳤지만 사실 다음 문장부터는 첫 문장을 강조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해결이 되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가 등장하면서 문제 상황을 만들고 있네요 ㄷㄷ 그리고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보면서 음 그러면 정신적 사건을 없애면 해결책이 될까? 하고 원인을 소거하면서 읽어 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문에 근거할 뿐 과한 해석은 금물이에요. 그저 다음 문단을 쉽게 읽기 위함의 예측이지 우리가 지문을 쓰는 게 아님니당..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론론이 공통적으로 나온 반면 이번에는 해결책으로 일원론을 제시하네요. 앵 뭔가 아쉽게 끝나지만 결론은 동일론이 등장하면서 위에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됩니다. 분석이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1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문단에서 위와 같이 정신과 육체의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문제점이라고 제시했는데 그건 안 나오고.. 동일론을 주장해버렸으니 이점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평가원의 지문은 뜯어볼 점이 정말 많아요. 다른 강사분들 해설 들어보시면 저와 또 다른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출 분석 화이팅하셔유:)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 ㉠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그들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든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든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하였다.
- ②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 ③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 ⑤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하기 전에 확인되었다.
- ②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
- ③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
- ④ 철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밝혀졌다.
- ⑤ 분젠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아 주는 버너를 고안하였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은하의 어떤 항성 α 와 β 의 별빛 스펙트럼을 살펴보니 많은 검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①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겠군.
- ②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 ③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④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겠군.
- ⑤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02 문장과 문단 읽기 - 분광 분석법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 ⑦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19세기 중반의 화학자의 연구의 문제점이 나오네요. 그러다가 물리학자가 협력을 제한해서 분광 분석법을 만들고 이는 성공했나봐요. 1문단이 쉽게 쓰여서 가볍게 읽기 마련인데 여기서도 얻을 게 많습니다. 우선 1문단에서 제시한 연구가 실패한 내용의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점과 그래서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데? 정도를 생각하면서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 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홀원소로 존재하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문단에서 제시된 프리즘을 통한 분석이 어떻게 했는지 실험의 구체적 과정이 나옵니다. 다음 문장에서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이유가 나오네요.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랍니다. 당연히 반비례 관계임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음 뭐 다음 문장에서는 실험에서 찾아낸 내용 제시하다가 이 실험 과정에서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의 위치는 어떤 원소,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이라는 조건을 파악하며 읽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이후 다음 문장에서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분광 분석법은 전통적인 분석법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ㄷ 3문단은 너무 빠세네..

먼저 첫 문장에서 분광분석법을 통해 천문학 분야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밝은 선과 태양빛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다음 문장을 봅시다.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지만 결국 태양에서 차가운 부분인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네요. 지금 계속 원인 분석, 원인의 원인 분석을 제시해요.. 너무 상세한 개념이니까 체크해두고 패스합시다. 수능 국어는 단기간에 암기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아 검은 선? 3문단이지 하고 넘어오시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 검은 선들은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고 하네요. 4문단으로 감시당.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4문단은 3문단과 달리 간단하게 나옵니다. 분광 분석법이 다른 여러 학문에 적용 가능했고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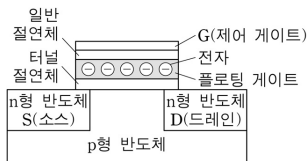
뭐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너무 힘들면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국어는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정보 처리와 주제 파악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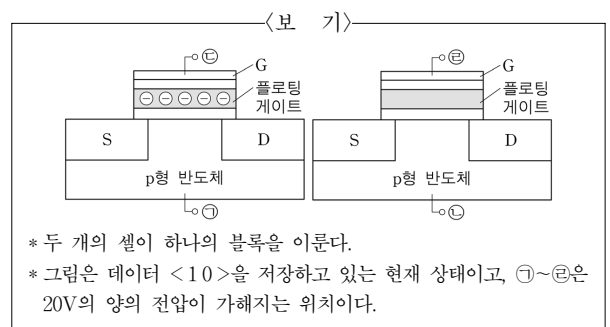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 밑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 ②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④ E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 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21. 밑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가 옳은 것은? [3점]



	1단계	2단계
①	㉠	㉡
②	㉢	㉣
③	㉠과 ㉣	㉡
④	㉣과 ㉢	㉡
⑤	㉢과 ㉡	㉣

02 문장과 문단 읽기 -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개념을 설명해주네요. 가장 기본적인 1문단입니다.

3번째 문장을 보면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스위치가 셀이고 트랜지스터 1개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일단 1문단이 비교적 정보가 적었지만 그러면 뒤에서 정보가 많이 나올 것이니 항상 긴장하며 읽어야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음.. 데이터를 읽는 상황이 나와요. 전압을 가하면 전자들이 S에서 D로 이동한다네요.. 뭐 이렇게 읽으시고

전자가 들어 있는 상황과 전자가 없는 상황으로 분류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이분법적으로 비교해줘야 하겠죠?

전자가 있으면 흐르기 어렵고 // 전자가 없으면 흐르기 쉬우니까 뭐 본인 나름대로 상상해서 기억해도 좋아요.

저라면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그림 보고 판단해요. 뭔가 딱 그림만 봐도 전자가 있으면 막힌 거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흐르기 어렵다! 로 갑시다.. 뭐 아무튼 이렇게 흐름 여부를 판단해서 셀의 값을 알아보랍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첫 문장을 보니 데이터를 저장할 때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네여 앵 근데 갑자기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의아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첫번째 과정이 지우는 거래요..

아무튼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블록에 전압을 가하면 ~ 전자가 있는 경우 p형 반도체로 넘어오고 전자가 없는 경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이게 데이터 지우기의 과정이겠죠?

약간 근데 1문단의 전압을 가하고 전자를 이끄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기억하기 어려우면 대상을 체크해두고 비슷한 방식이라는 점 기억하면 하나만 기억해도 되니까 정보량이 약간 줄어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음 4문단은 되게 짧아요.. 우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는 문장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데이터 지우기와 엮어서 생각해야겠죠? 이 지문은 쉽게 연결되지만 다른 지문에서 적용하는게 목표이니까 사고과정을 보는거예요. 유기적인 연결하는 과정 보고 한 문제 더 맞기랑 기출 N제 풀고 만점 받기라면 저는 전자를 택할래요.. 아무튼 쉬워도 무시하지 말고 계속 뜯어보면서 체화하세요. 다음 문장인 데이터 저장 과정을 보니까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 0V의 전압을 가한다네요. 앞에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과 반대되는 수식이에요.. ㄷ 지금은 파악하지 못해도 괜찮지만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는 항상 앞뒤 내용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A]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저 두가지의 장점을 뽑아 만들 메모리예요.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를 보니 1문단에서 본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가 기억에 남나요? 뭐 아무튼 애는 데이터를 지울 때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도 나오네요.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다. 뭐 플래시 메모리의 내용이니깐 3문단의 데이터 지우기를 떠올릴 수 있겠네요. 뭐 암튼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단점이 있네요. 서로의 장단점을 합쳐서 만들어진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어서 뭘 하든 상태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라네요.

Q. [A]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 추론 ㄱㄱ

A. [A]에 들어가는 내용은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입니다. 뭔가 흐름이 끊겨도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시키고 싶었는데 지문이 너무 쉬운 관계로 실패한 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리학에서는 선(善, good) 즉 좋음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을 쾌락이라고 간주해도 되는가? 선은 도덕적으로 옳음 또는 정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현실 세계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는 불변하고 완전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것이기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행동도 불완전한 수밖에 없다. 이데아 세계에는 선과 미와 같은 여러 이데아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며, 인간 이성의 최고 목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선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신성하며, 독립적이고, 오랜 교육을 받은 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욕구한다. 이렇게 인간의 관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선에 대한 ㉠ ‘고전적 객관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플라톤적 전통을 계승한 무어도 선과 같은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선이란 노란색처럼 단순하고 분석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노란색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노란색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듯이 선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선은 선이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어는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있을 때 각각의 세계 안에 욕구를 지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 선은 인간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것은 본래부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을 최대한 산출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 ‘주관주의’는 선을 의식적 욕구의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페리는 선이란 욕구와 관심에 의해 창조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관심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것에 관심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된다.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관심이며,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가치의 대상이 된다. 누가 어떤 것을 욕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선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페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게 되며, 그 대상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의 가치는 더 커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전적 객관주의자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선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만약 쾌락을 느끼는 신경 세포를 자극하여 매우 강력한 쾌락을 제공하는 쾌락 기계가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누군가가 쾌락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살기를 욕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쾌락 기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불만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나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두 입장을 절충한 입장도 존재한다.

㉢ ‘온건한 객관주의’는 선을 창발적인 속성으로서, 인간의 욕구와

사물의 객관적 속성이 결합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물의 축축함이 H₂O 분자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자들과 우리의 신경 체계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듯이, 선도 인간의 욕구와 객관적인 속성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 통합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욕구를 가진 존재가 없다면 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쾌락, 우정, 건강 등이 가진 속성은 그의 욕구와 결합하여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욕구가 객관적 속성과 결합하여 선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욕구가 중시된다. 결국 여기서는 적절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불편부당하며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알 수 있는 ㉣ ‘이상적 욕구자’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는 편견이나 무지로 인한 잘못된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가 선택하는 것은 선이 될 것이고, 그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문 주제가 상반없는 예시이다.
이런 문장 반이들이면서 자꾸 정보량 늘리지 말라.
주어와 서술어에 집중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리학에서는 선(善, good) 즉 좋음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을 쾌락이라고 간주해도 되는가? 선은 도덕적으로 옳음 또는 정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현실 세계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는 불변하고 완전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것이기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행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데아 세계에는 선과 미와 같은 여러 이데아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며, 인간 이성의 최고 목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선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신성하며, 독립적이고, 오랜 교육을 받은 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욕구한다. 이렇게 인간의 관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선에 대한 ㉠ ‘고전적 객관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플라톤적 전통을 계승한 무어도 선과 같은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선이란 노란색처럼 단순하고 분석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노란색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노란색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듯이 선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선은 선이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어는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있을 때 각각의 세계 안에 욕구를 지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 선은 인간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것은 본래부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을 최대로 산출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 ‘주관주의’는 선을 의식적 욕구의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페리는 선이란 욕구와 관심에 의해 창조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관심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것에 관심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된다.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관심이며,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가치의 대상이 된다. 누가 어떤 것을 욕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선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페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게 되며, 그 대상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의 가치는 더 커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전적 객관주의자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선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만약 쾌락을 느끼는 신경 세포를 자극하여 매우 강력한 쾌락을 제공하는 쾌락 기계가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누군가가 쾌락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살기를 욕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쾌락 기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불만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나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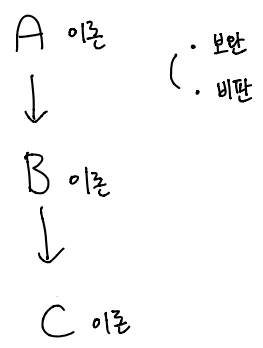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두 입장을 절충한 입장도 존재한다. ㉢ ‘온건한 객관주의’는 선을 창발적인 속성으로서, 인간의 욕구와

사물의 객관적 속성이 결합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물의 축축함이 H₂O 분자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자들과 우리의 신경 체계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듯이 선도 인간의 욕구와 객관적인 속성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 통합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욕구를 가진 존재가 없다면 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쾌락, 우정, 건강 등이 가진 속성은 그의 욕구와 결합하여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욕구가 객관적 속성과 결합하여 선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욕구가 중시된다. 결국 여기서는 적절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불분부당하며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알 수 있는 ㉣ ‘이상적 욕구자’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는 편견이나 무지로 인한 잘못된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가 선택하는 것은 선이 될 것이고, 그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문장이
있고
유리적 연결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형적인 수능 구조와 유사



대립할 때,
차이점 파악 중요하.

관심 ↑ → 가치 ↑ ⊕

1 문단을 보면
주제 파악은 못하더라
'선'이 좋아다는 것
파악된다.

필요한 말
이해하려고
필요한 것.
정보량 확보

명제.
정말 다 같은 내용.
정보량 확보.

03 봉 뜨는 글 연결하기 - 2016 LEET 11~13

2016학년도 리트 지문입니다. 여러 지문을 보다가 수능형 구조이기에 가져왔습니다.

전형적인 A - B - C 가 계속 보안을 하며 나오는 구조입니다. 리트 지문이기에 문제편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윽 그윽을 해버리면 문장, 문단 간 연결이 되지 않아 정보량이 많아지는 지문입니다. 비문학은 한 지문을 읽고 나면 힘들어야 합니다. 힘들게 읽어 보고 와주세요. 어차피 한 가지 주제입니다. 앞뒤 맥락 계속 파악해주면서 정보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윤리학에서는 선(善, good) 즉 좋음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을 쾌락이라고 간주해도 되는가? 선은 도덕적으로 옳음 또는 정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현실 세계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는 불변하고 완전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것이기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행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데아 세계에는 선과 미와 같은 여러 이데아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며, 인간 이성의 최고 목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선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신성하며, 독립적이고, 오랜 교육을 받은 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욕구한다. **이렇게 인간의 관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선에 대한 ① ‘고전적 객관주의’라고 한다.**

먼저 첫 문장을 보니 쟁점이 나옵니다. 쟁점이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줘야 합니다. 앞에서 ~?, ~?, ~? 나열하네요. 우선 수험생들이 생각할 점은 간혹 무작정 밑줄부터 긋고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밑줄을 그어놓으면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 문장의 단위는 읽고 하는 게 좋아요. 쪽 읽다 보니 이러한 쟁점 중의 하나가 “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라고 제시합니다. 아무리 봐도 앞에 나온 것들보단 이러한 쟁점 중의 하나! 가 다음 문장에서 제시할 내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 갑자기 이데아 얘기를 합니다. 이데아에 대한 내용을 쪽 나열하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인간의 관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고전적 객관주의라고 한다네요. 그러면 2번째 문장의 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1문단의 문장 자체는 길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져갈 정보는 윤리학에서 선은 객관적일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전적 객관주의라는 친구들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만 가져가도 충분해요

이러한 플라톤적 전통을 계승한 무어든 선과 같은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선이란 노란색처럼 단순하고 **분석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노란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란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듯이 선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선은 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어든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있을 때 각각의 세계 안에 욕구를 지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 **선은 인간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것은 본래부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을 최대로 산출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플라톤적 전통을 계승한~” 이라고 제시하니까 무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고 이걸 다르게 판단하면 안됩니다. 고전적 객관주의를 계승한 것이예요. 아무튼 이 친구도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선은 분석 불가능하고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벌써 3가지 정보가 등장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분석 불가능한 것이니까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정의를 내릴 수 없으니 직관으로만 판단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니까 결국 우리가 행거가야 할 부분은 무어는 “선은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다.” 고 주장한다. 정도겠네요

다음 문장도 그래요. “무어는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있을 때 각각의 세계 안에 욕구를 지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 이걸 쉽게 요약해준 문장이 바로 다음 “선은 인간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예요.. 이렇게 같은 의미이면 이어주는 연습을 해야 지문의 내용이 확 줄어요.

2문단 정리해보면 선은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되고 인간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하네요. 1문단의 선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내용과도 연결 가능합니다.

반면에 ㉠ ‘주관주의’는 선을 의식적 욕구의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페리는 선이란 욕구와 관심에 의해 창조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관심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것에 **관심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된다.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관심**이며,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무엇든지 가치의 대상**이 된다. 누가 **어떤 것을 욕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선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페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게 되며**, 그 대상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의 가치는 더 커진다고 말한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전적 객관주의자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선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만약 쾌락을 느끼는 신경 세포를 자극하여 매우 강력한 쾌락을 제공하는 쾌락 기계가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누군가가 쾌락 기계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살기를 욕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쾌락 기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불만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나쁘다는 것이다.

위에 나온 객관주의 주장과 다른 주관주의가 나옵니다. 주관주의는 선을 의식적 욕구의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지금 // 이전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보이실까요? 문장 자체는 길지만 결국에 내용이 같아요.. 결국에는 선은 의식적 욕구(관심)의 산물로 보고 “관심 ↑ → 가치 ↑” 이게 곧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보 처리를 하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저렇게 긴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전적 객관주의자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선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결국 뭐 그냥 자기 주장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쉽게 끌어와서 생각해요. 그 이후는 비판의 구체적 예시구용.. 가볍게 체크만 해두고 읽어요. 아무튼 비판이 나왔으니 이걸 다시 받아치는 내용이나 새로운 이론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두 입장을 절충한 입장이 존재한다**. ㉡ ‘**온건한 객관주의**’는 선을 창발적인 속성으로서, **인간의 욕구와 사물의 객관적 속성이 결합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물의 축축함이** H2O 분자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자들과 우리의 신경 체계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듯이**, **선도 인간의 욕구와 객관적인 속성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 통합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욕구를 가진 존재가 없다면 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쾌락, 우정, 건강 등이 가진 속성은 그의 욕구와 결합하여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욕구가 객관적 속성과 결합하여 선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욕구가 증시된다**. 결국 여기서는 **적절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 문단에서 문제점이 나오니까 바로 보완해주는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절충해서 나온 온건한 객관주의는 선을 인간의 욕구와 사물의 객관적 속성이 결합하여 생긴다고 바라봅니다. 물의 축축함의 형성 과정을 통해 예시를 들어주는데 이런 문장 읽을 때 저 구체적 내용에 집중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은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 이지 그 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다음 내용 예측하며 읽기를 강조하는데 만약 “선도 인간의 욕구와 객관적인 속성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 통합적으로 형성된다.” 이 문장이 삭제가 되었다면 바로 내용 파악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거기서 1등급이 나뉜다고 생각해요. 지문을 읽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분류해서 읽는 능력, 앞뒤 맥락을 살피면서 연결하는 정보 처리 능력. 여러분의 의견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독해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온건한 객관주의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응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하지만’이 나오니당.. 아 지금까지 읽었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ㅠㅠ

이와 같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불편부당하며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알 수 있는 ㉢ ‘**이상적 욕구자**’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는 편견이나 무지로 인한 잘못된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가 선택하는 것은 선이 될 것이고, 그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음.. 뭔가 앞에서는 잘 연결된 지문이었는데 해결책은 그닥..? 이네요
아무튼 4문단에서 적절한 욕구가 증시되는데 그 구분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상적 욕구자를 상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네요..:) 구체적 기준이 지문에 없어서 아쉽지만 문단 간의 연결을 잘 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니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받을** **㉣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7.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위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04 최근 기출로 적용하기 - 2020.11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1문단에서는 국제법에 포함된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나왔으니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조약과 관습법은 “명시적이나 보편적이나”로 분류가 되겠네요. 그리고 규범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반면에~ 라고 제시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국제법으로 묶어서 생각해서도 좋지만.. 언제나 기준은 명확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문장에서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걸 제시하니까 후자에 집중해서 읽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결정한 BIS비율 규제는 비회원 국가도 준수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 둘을 연결해서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후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국제법과 비교하며 읽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국제법의 효력과 비슷한 게 후자에서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BIS\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2문단의 내용은 BIS 비율의 구체적 수치입니다. 보통의 지문이라면 수식 정리를 직접 해야 하는데 이 지문은 친절하게 수식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수식만 체크해두고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2문단에서 수식 정리를 해준 줄 알았더니 3문단에서 수식의 구체화가 일어납니다. 수식은 적용하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암기를 한다는 마음보단 가볍게 체크해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보고 그대로 적용하는게 정확도가 높겠죠..?

위험가중자산 = 보유자산*위험가중치 인데 위험가중치는 국채와 회사채로 분류해야 하는 또 다른 정보가 나옵니다.

별써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라는 게 느껴져요. 중요한 포인트에 체크해두고 문제를 풀 때 돌아와서 세세한 정보를 체크하면 되니까 국채와 회사채를 분류하고 이는 획일적으로 부여됐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서 읽읍시다.

어..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이후~ 요구가 커졌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반영 사항으로 신용 위험 /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 신용 위험 측정 방식과 달리 시장 위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 승인 하)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바젤 1 협약이 완성됩니다.

이런 지문들은 분류 / 조건을 파악하는게 중요해요. 어차피 세세한 정보까지 기억하는 건 어려우니까 가져갈 수 있는 정보만 최대한 가져가고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돌아갑시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③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⑥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바젤 1 협약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끝나자마자 한계가 드러나서 바젤 2 협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쯤 읽을 때 생각할 건 다음 문단에서도 바젤 2의 한계를 드러내며 보완하는 협약이 나오지 않을까? 즉 '위험의 측정방식'을 토대로 한 협약의 변화 과정이 제시될 거라는 점을 예상하며 "한계점" "변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젤 1과 달리 바젤 2는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고, 표준 모형 / 내부 모형 중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제시하네요. 표준 모형에서 국채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바젤 1에서는 획일적인 반면, 바젤 2는 특정 범위가 나옵니다.

"A와 달리 B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부 모형은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 하) 은행이 선택하게 해준다 하고 필요시 자기자본 최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5문단에서는 바젤 3 협약이 나오네요. 음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는 점,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였다는 점만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르므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 위원회에는 2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하나 지문의 화제를 잘 살폈더라면 1문단의 내용을 끌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아시겠죠? "BIS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와 연결하여 보게 되면 6문단 처음 "바젤 협약은 ~ 현행 법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까지 연결해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장도 역시 연결됩니다.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 = 곧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후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자리 잡지 못하거나 발을 들이지 못한다. 이 내용 역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해당합니다.

결국, 6문단의 내용을 1문단과 문단 간 연결을 했다면 "BIS비율 규제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이유로 비회원 국가에서도 준수된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장 문단 간 연결이 중요합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국가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②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7문단 역시.. 결국 처음 제시한 화제와 연결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1문단에서 밝히는 바.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고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받아들인다 = 1, 6문단 연결..

이런 현실을 soft law 반면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hard law로 마지막에 다시 1문단에서 한 분류를 해줍니다.

사실상 6, 7문단은 정보량만 추가하는 지문이지.. 같은 내용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ㅜㅜ. ㅎㅎ..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밑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이 '내일 눈이 온다.'라면 ㉡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밑줄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밑줄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과 ㉡ 이외에는 ㉢과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와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와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정이 ㉡를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04 최근 기출로 적용하기 - 2020.11

㉠ 많은 전통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먼저, 전통 인식론자는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바라보며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고 제시합니다.. 당연히 1문단을 읽을 때 “반면”을 보면서 아, 전통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여 읽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쭉 읽다보니 “달리”라고 언급하면서 차이점을 친절하게 분류해 주지만.. (아 당연히 여기서는 파악해야 함) 만약 문장이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라고 제시하더라도 이 차이점을 분류해야 합니다. 음.. 그런데 사실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한다.. 여기까지 읽고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마도 베이즈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세요.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한 것이지 행위에 한 것은 아니다.

바로 1문단에서 설명한 베이즈주의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네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라고 제시하네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어떤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믿음의 정도도 변한다는 거네요.

다음에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제시합니다. 아, 조건화 원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건화 원리가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파악하면서 가야겠죠? 어쨌든 조건화 원리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설명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글자 그대로 보면서 다음 문장을 읽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가 나오네요!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라서 충분히 이해하기 쉽네요. 우선 ‘비가 온다’라는 관련된 두 명제가 나오면서 “전자가 참이면 후자가 참이라는 걸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결국 위에서 말한 “믿음의 정도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파악하며 읽어주세요.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⑥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㉔ 본다.

오.. 첫 문장에서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 없는 것도 있다고 제시하네요.

관련 없는 명제는 믿음의 정도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결국 비교하면서 읽으면 앞문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아, 관련 있는 명제는 믿음의 정도가 변해야 한다고 제시했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도 계속 같은 내용을 언급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이유는 관련 있는 명제를 뜻하겠죠?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㉕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㉖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2문단에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웠지만 3문단에서 기준을 잘 잡아서 읽었다면, 4문단 첫 문장처럼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ㅋㅋ 아무튼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했다네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이 문장을 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당연히 학교를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행위” 라는 점.. 파악하셨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문제에도 적용을 합니다.

계속 같은 내용을 말하지만.. 마지막 문장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장을 위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면 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겠네요. 앞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문이지만.. 어려운 정보는 글자 그대로 처리하면서 비교/대조하며 읽었다면 충분히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6.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에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27. ㉣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줄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04 최근 기출로 적용하기 - 2020.11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하는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 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ㄷㄷ.. 첫 문장부터 정보량이 폭탄일 거 같은 느낌이 드는 지문입니다. 최대한 정보를 줄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음.. 그냥 신체의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식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일부'를 이식편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한대요. 그런데 동종 이식을 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음 사실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이해하고.. 나머지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정리해봅시다. 그냥 뭐 동종 이식을 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동종 이식은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이라고 했으니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이식편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야.. 다들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내용이라더라도 서로 비교하며 읽어줘야 해요! 글 읽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도 뭐라 하지 마세요..
흠 다음 문장. 어쨌든 면역 거부 반응은 MHC의 차이에 의해 생긴대요. 그리고 MHC의 차이는 거리가 멀수록 커지고 이를 통해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고 하니까 거리 ↑ MHC 차이 ↑ 거부 반응 ↑ (+) 비례 관계임을 체크하고 갑시다.
뭐 그런데 이게 비싸고 이식편이 부족해서 전자 기기 인공 장기라는 대체 방안이 나와요. 그런데 전자 기기 인공 장기는 ㅠ 일시적 대체.. 정기적 부품.. 추가 전력. 아 뭐 아무튼 그냥 "일시적"이라서 아직 어렵다네요.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발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 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흠.. 이번에는 동물의 이식편을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고 합니다. 애는 또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다네요. 왜?
자연항체가 항원에 반응하면 초급성 거부 반응과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요.. ㅠㅠ 이건..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넘어갑시다. 개념을 모르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경우가 있대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미니돼지는 장기 크기가 사람이랑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서 연구가 진행중이래요.
지금 지문 구조가 어떤 개념이 나오고 문제점이 생기면서 또 다른 개념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니까 음 다음 문단에서 또 다른 이식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거 같습니당. 지문을 읽을 때 "왜?" 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중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호 이중이식은 문제점이 많네요.. 거부 반응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애는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네요. 같은 대상이라면 문장을 연결해서 읽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ㄸ (연결을 안 하면..DNA의 일부분..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고..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하고.. 우육)

아무튼 다음 문장.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유전 정보를 RNA에 담으며 역전사 효소를 가짐. 그리고 특정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답니다.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할 점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겠네요. 이런 문장이 주어지면 당연히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읽어야 해요.

아 일반적인 생명체가 DNA → RNA의 전사 과정인 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으로 RNA → DNA이면서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고 하네요. 사실 전사/역전사니까 이름에서도 대립적이라는 느낌을 받죠?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가 나오니까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공통점이라는 걸 체크해주세요.

문제에 나오던 안 나오던 우리는 기출 N제가 아니라 지문 속에서 읽는 방법을 얻어가려 하는 거니까 다 체크해요 ㄸ.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 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나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생기는 과정이 나오네요. 흠..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손이 살아남은 세포의 특징을 물려받았나 봐요. 옹 근데 이렇게 세대가 지나면서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의하면서 읽어야겠죠?

아.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서 다른 종에게 주입하면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감염시키기도 한대요..

당연히 이 문장을 읽을 때 “이중 이식을 하면 ~” 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 그래서 해결책이 뭔데?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음 뭔가 아쉽네요.

이 지문은 1문단에서 주제 파악과 비례 관계 처리, 2문단에서 문제상황 파악과 공통점 처리

3문단에서 이항대립적 관계의 비교 대조를 통한 정보 처리

4문단에서 문제상황과 해결방안 파악 P-S를 하면서 읽었으면 비교적..? 정보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답

CD드라이브 445

심신이원론 532

분광분석법 534

플래시 메모리 123

2020 수능

BIS 비율 134553

베이지즈주의 22452

레트로바이러스 5131